

외환리포트

전일동향

환율은 전일 대비 0.20원 오른 1,076.30원으로 마감

이날 환율은 미 연준의 기대에 못 미치는 통화정책 기조에 강보합세를 보이다 전일 대비 0.20원 오른 1,076.30원으로 장을 마감하였다.

오전 중 글로벌달러강세 반영하여 2.70원 오른 1,078.80원에 개장하여 소폭 상승하여 1,079.40원까지 레벨을 올렸으나 아시아 시장에서 FOMC성명을 통해 나타난 Fed의 물가 진단이 생각보다 강하지 않다는 인식 확대되며 强달러 일부 되돌렸고 1,070원대 후반에서는 수출업체의 네고 물량 출회되며 달러원환율은 우하향 하는 모습을 보였다. 다만 위험선호 둔화에 외국인 주식 순매도 이어지며 1,075원 중반대에서는 크게 밀리지 않다가 오후 들어 수출업체 네고물량 지속 출회되며 1,074.40원까지 저점을 낮추었고 수급에 따라 레인지 장세를 보이다 1,076원대로 올라 1,076.30원에 장을 마감하였다.

한편, 이날 마감시점의 원/엔 재정환율은 직전영업일 대비 2.33원 오른 982.16원을 기록하였다.

전일 달러 변동

시가	고가	저가	종가	평균환율
1078.80	1079.50	1074.70	1076.30	1076.50

전일 엔화 변동

시가	고가	저가	종가
979.49	987.98	978.27	985.48

금일 전망

미중 무역협상을 주시하며 1,070원대 중반에서 박스권 등락 예상

금일환율은 미중 무역협상을 주시하며 1,070원대 중반에서 박스권 등락 예상된다.

전일 역외차액결제선물환(NDF) 환율은 전영업일 종가 보다 1.20원 내린(스왑포인트 고려) 1,074.35원에 최종호가되었다.

FOMC에서 매파적 신호가 두드러지지 않아 미 국채금리가 하락세를 보이며 달러화 강세가 되돌려지고 있는 양상이다. 또한 이월 네고 또한 달러원 환율 하락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다만 중국 베이징에서 진행되고 있는 미국 경제 대표단과 중국 대표단의 무역협상 결과를 앞두고 무역분쟁 경계감은 투자자들의 투자심리에 부담으로 작용하여 외국인 주식 순매도 여부에 따라 하단이 지지될 가능성이 높다. 미국은 4천억 달러에 육박하는 대중 무역적자를 줄이기 원하고 중국은 관세 폭탄을 피하기를 원하는 모습이나, 사전 예비 협의도 없이 이틀만에 갑작스러운 성과를 내기에는 어려울 것이라는 판단이 시장에서 우세한 것으로 보여진다. 또한 FOMC 발표 이후의 미국 비농업부문 고용 지표 발표를 앞두고 있어 평소보단 영향력 약할 것으로 보이나 여전히 경계감 작용하여 관망세 짙은 보험권 움직임 보일 것으로 예상되고 연휴를 앞두고 포지션플레이 제한될 것으로 예상된다.

금일 달러/원
예상 범위

1070.75 ~ 1078.50 원

전일 외국인 주식 매매 동향 : -3239.34억원

체크포인트	
	■ 뉴욕 차액결제선물환율(NDF) : 전일 서울외환시장 현물환 대비 1.20원 ↓
	■ 美 다우지수 : 23930.15, +5.17p(+0.02%)
	■ 전일 현물환 거래량(종합) : 75.48 억달러
	■ 전일 외국인 채권매매 동향 : +2160 억원

주의사항

※본 리포트는 한국무역보험공사가 외부기관으로부터 획득한 자료를 인용한 것입니다.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